

전국 최초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쇼핑위크' 17~25일 개최
130여개 지역상점 연계 공연·문화행사·이벤트 등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7~25일까지 '2022 전북 쇼핑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17일 오후 5시 30분 전주 오거리 나래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축하공연은 거리퍼레이드와 브라스밴드 공연을 시작으로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수퍼비, 연예듀케이터드와 '이별하러 가는 길'의 신세대 발라드 가수 임한별의 축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 행사는 전주 영화의거리, 견고살은거리, 청소년의거리, 객리단길 등 고사동 일원의 130여개 지역상점과 연계해 진행된다. 특히 전북 쇼핑관광 붐업 조성 및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겨울 빛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어쿠스틱 통기타 버스킹 공연과 마임, 저글링, 룰렛 돌리기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이벤트도 마련됐다. 또 행사장에 조성된 쇼핑위크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 해시태그해 올리면 고사동 원도심 상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국 최초 진행되는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전북 관광 및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쇼핑하기 좋은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쇼핑관광 TF팀(063-230-749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2 전북 쇼핑위크' 포스터

국악인 남상일 초청 '더 드림 부안아카데미'

부안군, 신명나는 국악·우리소리 이야기 전회

부안군은 15일 오후 2시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국악인 남상일을 초청해 부안군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더 드림 부안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부안군청 대강당을 가득 메운 군민의 환호 속에서 시작된 국악인 남상일의 강연은 '남상일의 신명나는 우리소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국악인 남상일은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구성된 목소리로 1시간 30분가량 국악과 더불어 우리소리에 대해 전하며, 참석한 군민들이 우리소리와 우리기타의 흥과 멋에 흠뻑 취하게 만들었다.

강연에 참석했던 한 군민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정석 부군수는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부안군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신명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악인 남상일은 '국악은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불후의 명곡, 황금연못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여 국악을 알리고 관중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국악계의 아이돌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 멘티 기관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3 인생나눔교실 호남권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사업에 함께할 멘토봉사단과 멘티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멘토가 멘티를 찾아가 삶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멘토봉사단은 50대 이상의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을 대상으로 40명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멘토봉사단은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배려의 인문 가치를 기반

으로 다양한 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취지를 전제로 멘토의 경험과 재능, 지혜를 활용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된다.

또 멘티 기관은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소재를 두고 있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멘토링 운영이 가능한 시간·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멘토링 그룹은 세대 간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인문가치를 나누고 싶은 5명 내외의 멘티들로 구성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자율학게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청소년복지센터, 대학생, 군부대, 직장 동호회 등 호남권역 소재의 기관이다.

한편 멘토봉사단·멘티기관/그룹은 심의를 통해 2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튜터는 2월 중 모집이 시작된다. 최종 선발된 멘토는 멘티의 특성과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상호 매칭되며, 3월 멘토발대식 및 신규멘토 교육 과정을 거친 후 4월부터 12월까지 인문멘토링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31일까지 이메일(jbct-life@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옷칠·같이교육 수강생 전시회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옷칠·같이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남원목공예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시행한 '2022 남원시 옷칠·같이교육' 수강생들의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15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청 강당에서 개최한다.

본 교육은 올해로 9년째 운영됐으며, 이번 해에는 2개 분야(옷칠,같이), 5개반(옷칠 초급·중급·고급반/같이 초급·중급반)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옷칠 초급반 방덕원 등 8명, 옷칠 중급반 운영애 등 8명, 옷칠 고급반 조윤기 등 11명, 같이초·중급반 민우기 등 7명을 포함한 총 34명의 수강생이 수료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준호,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선임... 민성욱과 공동 체제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신인 집행위원장으로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는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조직위는 지난 14일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민성욱 현 부집행위원장과 정준호 씨의 공동 집행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임기는 3년이다.

민성욱 집행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 출범부터 조직위를 지킨 풍부한 경력의 소유자로 조직위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준호 집행위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영화배우로, 현재는 아울컴퍼니와 해피엔젤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측은 "그동안 우리 영화제가 독립과 대안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며 독립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상영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해왔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제일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아왔다"며 "이번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정체성 확립과 대중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

부안군, 댄스콘서트 '플레이 그라운드' 21일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댄스콘서트 '플레이 그라운드'를 무료로 공연한다.

'플레이 그라운드'는 최근 댄스 신드롬에 맞춰 국내 활동하는 전문 비보이 및 스트릿 걸스 합창단이 총 출연하는 댄스콘서트로 다양한 춤 장르를 소개하고 대중적인 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댄스콘서트에서는 전문 B-boy인 '플레이 그라운드', 걸스합창의 '하이업', 스트릿 합창의 '모션아트'가 출연한다.

각 팀마다 여러 장르의 댄스를 선보이고, K-pop 퍼포먼스 메들리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관객들을 무대로 초대하여 비보이팀이 간략한 댄스동작을 알려주며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도 준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벤처 창업 아카데미 성료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 관광벤처 창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 교육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도내 예비 관광벤처 및 관광 분야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총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은 관광 분야 창업 트렌드, 기업 목표설정, 비즈니스 모델 수립, 시장조사 방법 등 이론 교육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1:1 멘토링 등의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은 1:1 전문 멘토

링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해 교육 마지막 날 직접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생들은 데모데이를 통해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레고 블록, 역사문화 및 전통문화체험, 농촌 및 마을 지원을 활용한 로컬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김현 본부장은 "이번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템은 향후 다양한 사업으로 연계해 도내 관광벤처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